

# PEOPLE

2025년 9월 5일 금요일



## 광주소방

### 세계양궁대회 경기장 현장 살펴

광주소방안전본부는 '광주 2025 현대세계 (장애인) 양궁선수권대회' 개막을 하루 앞둔 4일 경기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소방안전본부는 이날 대회 관계자 등을 만나 화재예방 대책과 긴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선수와 관람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대회 기간 중 경기장과 연습장에 구급차를 배치해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와 긴급 이송에 대비하며, 외국인 선수단과 관람객의 원활한 119신고 체계 구축을 위해 외국인 3차 통역시스템을 운영한다.

김희철 광주소방안전본부 119대응과장은 "이번 세계양궁선수권대회가 선수단과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안전한 대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안전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 광주도시공사, '청렴 골든벨' 개최

광주도시공사(사장 김승남)는 지난 3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역량 강화 및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도전! 청렴 골든벨' 퀴즈대회를 개최했다.

청렴 골든벨은 기존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청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사례 중심의 퀴즈로 재미있게 익히고, 자연스럽게 청렴 의식을 높이고자 기획됐다.

이번 행사는 직원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 속에서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객관식 및 주관식 퀴즈를 풀며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김승남 사장은 "이번 청렴 골든벨 행사는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면서 청렴의 가치를 몸소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렴 시책을 통해 조직 전반에 청렴문화가 깊숙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 동구학교부청청소년지원센터

### '찾아가는 직업 토크쇼' 진행

광주동구학교부청청소년지원센터는 최근 '찾아가는 직업 토크쇼'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동구와 함께 진행된 이번 행사는 현지 종사자들이 직접 참가, 청소년의 진로 탐색과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를 통해 방송 분야 전문가인 윤희진씨와 IT·데이터 계열 마석완씨는 각각 유튜브 콘텐츠 개발·크리에이터 양성, 영상 촬영 기법과 IT 플랫폼 개발에 대해 설명했다.

청소년들은 각 분야 전문가에게 자유로운 질문의 응답을 하며 진로 결정에 도움을 얻었다.

송태영 기자 styl235@gwangnam.co.kr

## 안형승 광주 장애인양궁 감독

# 세계양궁연맹 장애인위원회 위원 당선

### 4년간 세계선수권 조직위원회 지원·전 세계 장애인양궁 홍보 활동

광주장애인체육회는 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6차 세계양궁연맹(WA) 총회'에서 안형승 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 감독이 장애인위원회 위원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안형승 감독은 7명의 후보자 중 1차 투표에서 선출된 스페인 후보자에 이어 2차 투표에서 50.32%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선정됐다. 이어진 3차 투표에서는 콜롬비아 후보자가 위원으로 선정됐다.

이번 총회에서 선정한 세계양궁연맹 장애인위원회 3명의 위원들은 선정 시부터 4년(안형승 감독·스페인 위원)·2년(콜롬비아) 간 세계 장애인양궁대회 조직지원, 경기 규칙, 장애인 양궁

선수 등급분류, 심판위원회 협력 등 장애인양궁 종목에 관한 국제 기준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 중 한 명은 세계 양궁을 대표해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에서도 활동한다.

안형승 감독은 한국체육대학을 졸업한 비장애인 리커브 선수 출신으로 2022년 1월 광주시장애인직업능력개발부 양궁 감독으로 부임해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 금 1·은 1, 2023 유럽컵 은 1, 2024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시도 종합 1위 등 굵직한 지도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윤태성(광주시청), 권유나(광주시청) 선수를 발굴해 두 선수를 국가대표급 선수로 성장시켰다.

특히 윤태성은 김육금(광주시청) 선수와 함

께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되는 '광주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출전해 생애 첫 세계 선수권 메달을 노린다.

안형승 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 감독은 "장애인양궁 발전을 위해 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세계양궁연맹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맑은 위원 활동 외에도 활동 간 대한민국, 그리고 광주 장애인양궁을 많이 홍보할 계획"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상득 광주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장애인양궁의 국제적 발전과 저변확대에 큰 역할을 하게 될 안형승 감독의 당선을 축하한다"며 "이번 달 개최되는 광주 세계(장애인) 양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힘 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양궁연맹은 국제 양궁 종목을 총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스포츠 행정기구다. 1931년 9월 4일 설립돼 스위스 로잔에 본부가 위치해있으며, 전 세계 150여개국 이상이 회원으로 참여해 국제 양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한다. 이번 제56차 총회에서는 미국의 그레그 이스턴회장이 제10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NH농협은행 광주본부는 최근 광주 학생 및 교사 등 7000여명이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KIA와 SSG의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7000만원을 후원했다.

## 농협은행 광주본부, 사제동행 '야구장 가는 날' 후원

### 학생들에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 제공

NH농협은행 광주본부는 최근 광주 학생 및 교사 등 7000여명이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KIA와 SSG의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7000만원을 후원했다.

'야구장 가는 날' 행사는 광주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사제동행 및 교육복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NH농협은행 광주본부가 후원했다.

광주 학생들은 이번 행사에서 친구·교사와 소통하며 다양한 문화체험을 경험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문화예술 감수성을 높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장재영 NH농협은행 광주본부장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어울려 응원봉을 두드리고, 즐겁게 경기를 관람하는 모습을 보니 매우 뜻깊게 느껴졌다"며 "광주시교육청과 협력해 광주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꾸준히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

## 전남경찰청 '주취자응급의료센터' 개소

전남경찰청은 4일 목포시의료원에서 전남자치경찰위원회, 목포시의료원과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소식을 진행하고,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모상모 전남경찰청장, 정순원 전남자치경찰위원장, 최형호 목포시의료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목포시의료원은 응급실 내 주취 환자 보호를 위한 시설 확보 및 필요한 응급요를 제공한다. 전남경찰청은 센터 및 응급실 내 경찰관을 상시 배치해 주취 환자 보호 및 응급실 내 의료진의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센터 운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청이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도내 주



취자 관련 신고는 연 5만여건이다.

이에 전남경찰청은 2023년 4월부터 순천의료원에 동부권 주취자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해왔으며, 이번 목포시의료원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신설로 서부권에서도 주취자 신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전형관 고흥 월하석류농원 대표, 이달의 임업인 선정

### 원액·즙·식초 등 다양한 가공품 개발...연매출 3억 수익

전남도는 9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고흥 두원면에서 석류를 재배해 가공품까지 생산하는 전형관 월하석류농원 대표(56)를 선정했다.

전형관 대표는 2002년 안동 하회마을 여행지에서 고객에 열려있는 석류꽃을 보고 이에 매료돼 따뜻한 해양성기후인 고흥에서 석류 재배를 시작했다. 현재 5ha 규모로 재배하고 있으며, 월하석류농원을 운영하면서 연간 30t 가량을 생산해 연매출 3억원의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특히 석류가 생과로 섭취가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병해충에 강하고 비교적 신맛이 적어 생과로도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월하 1호' 품종을 개발하고 석류원액, 석류즙, 석류식초 등 가공품도 개발해 전국에 판매하고 있다.

고흥의 석류 생산량은 전국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부드러운 해풍과 풍부한 일조량으로 빛깔이 선명하고 새콤달콤한 맛이 뛰어난 지리적 표시제 제94호로 등록됐다.

전형관 대표는 "'고흥 하면 석류', '석류 하면 건



강'을 전국에 알리겠다"며 "이를 위해 친환경 석류 생산은 물론, 다양한 가공상품 개발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 광주시체육회, 세계양궁대회 K-스포츠과학 알려

### 스포츠과학연구원 현장 지원 5차례 리허설 마쳐

광주시체육회 스포츠과학연구원이 5일부터 열리는 광주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서 'K-스포츠과학 현장 지원'에 나선다.

스포츠과학연구원은 광주세계양궁대회에 참가하는 국내·외 선수단의 스포츠과학 현장 지원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연구위원 및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상황 대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등 총 5회에 걸친 리허설을 마무리했다.

양궁대회에서 연구원이 담당할 주요 임무는 약 80개국 800명의 전체 선수들에 대한 스포츠과학 컨디션 지원으로, 광주스포츠과학센터 박사급 연구원과 컨디션센터 전문인력을 파견하며 약 2억 원 상당의 전문 장비가 투입된다.

세부 지원내용으로는 종목 특이적 스트레칭, 부상 예방, 경기 전·후 회복 컨디션닝, 경기력 향상을 위한 개인별 멘탈 지원 서비스 등이다. 연구원은 이를 통해 한국의 효자 종목인 양궁을 널리 알리고, '민주·인권·평화, 스포츠 도시 광주'라는 도



시 브랜드를 드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남수주체육회장은 "스포츠가 가진 스포트 파워를 통해 광주를 전 세계에 알리게 되 기쁘다"며 "광주를 찾는 국내·외 선수들이 K-스포츠 과학 지원을 통해 불편함 없이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동구,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포럼. 광주 동구(구청장 임태)는 4일 대회의실에 동구발전혁신위원회, 주민, 공직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0년간 지방자치의 성과와 향후 동구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기 위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했다.



담양군-조선대학교, '치매예방·인구소멸 극복 업무협약' 체결. 담양군과 조선대학교는 4일 조선대학교에서 '치매예방과 인구소멸 극복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치매 조기진단과 예방, 의료·복지 서비스 연계, 인구 소멸 대응 정책 마련 등 지역사회가 직면한 과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진제공=담양군